

걸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종합-전문 건설업 이견·지자체 외면에 실효성 의문

전남 올 35건 발주... 22개 시·군 중 11곳 실적 없어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업계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건설업계가 종합-전문 건설업체로 나뉘어 공동도급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공동도급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를 제거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과 종합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는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했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시공하는 방식이다. 적용범위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다.

이에 대해 하도급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발주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을 갖고 도입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만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 수 없다는데 적정공사비를 확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시공하는 방식이다. 적용범위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다.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대토론회'와 관련 의회와 행정부처가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드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자리가 지역 건설업계간 업무 분쟁을 조려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힘을 모아 나가도 쉽지 않은 상

황에서 한쪽의 회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시설물 하자발생 시 수요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업체 관계가 아니라 일회성 협력관계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각차로 인해 일선 지자체의 제도 시행도 결동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건수는 35건(424억원)이었지만 공동도급제를 인식하는 분위가 달라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22개 시·군 중 목포·강진·구례·담양·무안·신안·영광·영암·완도·진도·해남 등 11곳에 달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시·군도 구례·담양·무안·신안·영광·완도·진도·해남 등 8개나 됐다. /김대성기자bigkim@

효성-베트남 석화·인프라·IT 협력 강화

조현준 사장, 호찌민 당서기 만나 협력방안 논의

효성 조현준 전라본부장(사장·사진)이 지난 9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라탕 베트남 호찌민 당서기와 만나 호찌민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효성이 11일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레 반 콰 호찌민시 부시장, 팜 후 치 주한 베트남 대사, 박노완 호찌민 총영사, 김규영 효성 산업자재PG CTO, 박준형 효성 화학PG장, 차천수 효성 건설PG장이 참석했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은 베트남 남부 지역에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제품의 세계 최대 생산 기지로 발돋움하게 됐다"면서 "향후 호찌민시와 석유화학 분야, 전력 기자재, 상하수도 처리, 도로 건설 등 인프라 분야와 전자지불결제, ATM 등 IT 분야에서도 효성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라탕 호찌민 당서기는 "효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베트남 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관계인 만큼 호찌민의 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지표의 방향에 따라 인상 예상 시기가 달라지고 있지만 연준이 연내에 최소한 1차례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일본은행도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모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6월에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경기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1.25% 동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

한은은 지난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3개월째 동결됐다.

한은 금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속속 도입하는 각종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위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의 카드사용액까지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올 상반기 동안 54조원이나 늘어 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7월에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3000억원 늘었고 8월엔 8조70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급증행진이 정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8·25 대책을 내놓았고 이달 초엔 또다시 집단대출의 소득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대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미국 경제지표의 방향에 따라 인상 예상 시기가 달라지고 있지만 연준이 연내에 최소한 1차례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일본은행도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모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6월에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경기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이웃돕기 '사랑의 호프'



티켓 판매금·직원 모금액 4074만원 사회복지모금회 전달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강대욱)과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9일 오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지역사회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행복한 광주' 함께 하는 광주은행! 제11회 사랑의 HOPE-DAY'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대욱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한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박용 광은 노우회 회장(초대, 4대, 5대, 6대 노조 위원장), 김종식 경제부시장, 김동찬 광주시의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중해 의장 등 지역 노동계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광주은행 노동조합과 광주은행은 이날 마련된 호프데이

티켓 판매대금과 광주은행 직원 모금액 4074만원을 김종식 경제부시장과 김상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2억 8966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광주은행 강대욱 위원장은 "사랑의 호프데이는 사회 약자에 대한 희망나눔과 사람실천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으로 변함없는 지역민의 사랑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보폭 넓은 '자영업자의 발'

기아차 '2017 봉고III' 시판...엔진·사양·외관 등 편의성 ↑

대한민국 사업자의 발. 봉고가 새롭게 태어났다.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을 개선한 기아차 '2017 봉고III'가 지난 8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2017 봉고III'는 기존 모델의 뛰어난 적재능력을 바탕으로 ▲유로6 기준 엔진 적용 ▲고객 선호사양 확대 ▲내외관 디자인 고급화 등 상품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봉고III'는 단단한 하체구조를 갖춰, 무게있는 화물을 자주 운송하는 소형 트럭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적재능력이 뛰어나다.

차체 프레임에 'c'자 형태의 이중 페단면 방식이 적용돼 강성이 우수하며, 하드 서스펜션을 탑재해 화물을 안정적으로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적재량의 높이가 낮아 화물 적하역에 유리하고,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이 짧아 신속한 차선이동과 골목길 진입이 유리하다.

동급 유일의 1.2t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봉고III'만의 강점이다. 기아차는 또 상품성을 크게 향상시키면



서도 가격 인상은 주력 모델(1t 2WD 초장축 강캡 럭셔리) 기준 40만원으로 최소화하면서 1500만원대를 유지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혜택을 주고자 노력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화물 수송 업무가 많은 고객들에게 기본기가 강하고 한층 편의성이 좋아진 봉고 트럭은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